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본격화

익산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열고 시설 배치·활용계획 등 구체화

백제왕궁의 정전과 침전, 공방과 정원까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새로운 공간이 익산에 펼쳐진다.

익산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논의했다.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총공사비 234억 원을 투입해 백제왕궁의 궁성 배치와 건축상식, 조경 기법 등을 접목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왕의 정전과 침전을 비롯해 공방, 정원 체험 등 백제왕궁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문화자원을 연결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역사문화 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정호 익산시장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본·실시설계 추진 방향과 주요 시설 배치, 평면계획, 공간

별 활용 방안,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공유하고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백제왕궁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공간에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공간 구성은 물론, 조성 이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돼 지역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기본·실시설계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면서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대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에 나갈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7월 ‘화제의 책 200선’ 발표

출판진흥원, 유래혁 작가 ‘수족관’ 종합·지역서점 판매 1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승수)이 7월 한 달간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를 집계한 ‘화제의 책 200선’을 발표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통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를 비롯한 전국 438개 지역서점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7월 도서 판매 순위를 집계했다고 밝혔다.

‘화제의 책 200선’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수집된 도서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월 판매량이 높은 도서를 순위별로 정리한 자료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지난 2021년 9월 개통됐

으며 도서 메타데이터와 판매 데이터를 수집·관리·배포해 도서의 생산부터 유통·판매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7월 종합 판매 1위는 유래혁 작가의 ‘수족관’이 차지했다. 2023년 말 출간된 이 책은 최근 독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이른바 ‘역주행’ 도서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와 유시민 작가의 신작 ‘유럽 도시 기행 3’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이밖에도 ‘니체의 초월자’, ‘자몽살구클럽’, ‘참 영원한 성자들의 크신 사랑’, ‘모순’, ‘나

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7월 전체 도서 매출액은 1,6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인 6월 1,262억 원보다 약 28.0%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같은 달 1,586억 원과 비교하면 약 1.8%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도서 판매 순위와 함께 지역서점의 일반 단행본 판매 순위도 공개됐다.

수험서와 참고서 등을 제외한 일반 단행본 판매량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지역서점에서 도 ‘수족관’이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심어송라이터 한로로의 소설 ‘자몽살구클럽’, 황보름 작가의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양귀자 작가의 스테디셀러 ‘모순’,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가 뒤를 이었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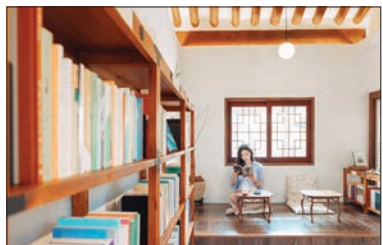
전주시, 도서관 여행상품 ‘전주 리브립’ 출시

전주시는 전주만의 독창적인 도서관 문화와 관광 자원을 결합한 도서관 여행상품인 ‘전주 리브립(Librip)’을 민간 여행사들을 통해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리브립(Librip)’은 도서관(Library)과 여행(Trip)의 합성어로, 전주시 곳곳에 조성된 특색 있는 도서관들을 거닐며 책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새로운 감성 여행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행상품은 KTX 연계 상품과 수도권 출발 전용 버스 투어 상품으로 구성됐으며, 공모를 거쳐 선정된 전문 여행사(아름여행사, 여행공방, 해밀여행사, 행복을주는사람들)들이 주관 운영한다.

주요 코스는 △덕진공원의 고즈넉한 한옥 도서관인 ‘연화정도서관’ △전주한옥마을의 정취를 담은 ‘한옥마을도서관’ △추억과 레트로 감성이 가득한 ‘동문헌책도서관’ △음악과 호수가 만나는 ‘아중호수도서관’ 등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 탐방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여기에, 이 여행상품에서는 전주한옥마을, 서학예술마을 산책과 함께 전주비빔밥 체험 등 전주의 대표 미식과 문화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상품 상세 일정 확인 및 예약은 비짓전주 누리집(tour.jonju.go.kr) ‘여행상품 홍보관-도서관 여행’ 또는 지정 여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진 공모

군산시가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구 군산세관 본관 등’ 행사 개막을 앞두고 시민 사진 공모 ‘변화한 군산’을 진행한다. 시민이 직접 미디어아트 작품의 주인공으로 참여해 지역의 역사와 국가유산에 빛을 더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호원대학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빛을 품은 군산변화구경(群山變化九景)’을 주제로 오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군산세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와 삶을 공유하고 있거나 군산에 소중한 추억을 남긴 여행자라면 연령과 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눈과 표정이 선명하게 드러난 정면 상반신 사진 1장을 제출하면 되며, 모집 기간은 14일까지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소중한 눈코입, 같이 놀자!’ 운영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9월부터 김병중 화백 그림책 연계 예술 교육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정채봉 작가가 글을 쓰고 김병중 화백이 그림을 그린 그림책 ‘코는 왜 얼굴 가운데 있을까’를 활용한 그림책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소중한 눈코입, 같이 놀자!’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병중 화백의 그림책을 기반으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만의 특색 있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림책 감상과 놀이, 예술활동을 결합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협동심·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그림책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얼굴을 이루는 눈, 코, 입, 귀가 각각의 역할을 하듯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과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예술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구성됐다.

단순한 미술 체험을 넘어 그림책 감상과 대화를 비롯해 신체 표현, 미술·무용·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접목한 융합예술교육으로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몸으로 느끼고 서로 협력하며 배우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교육동 ‘공’에서 총 15회 운영, 유아 및 초·저학년을 대상으로 회당 15명 이내로 진행되며,

/남원=김기두 기자



그림책 감상과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으로 △대형 얼굴판을 활용한 이목구비 퍼즐 협동놀이 △품으로 표현하는 역할놀이 △나만의 얼굴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다.

참여기관 모집은 8월 12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063-620-57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남 선비문화의 중심지인 정읍 태산선비마을에서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이 문을 열었다.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개원

호남 선비문화의 중심지인 정읍 태산선비마을에서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이하 수련원)이 문을 열었다.

정읍시는 11일 수련원 다목적실에서 개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김적우 무성서원 원장, 정읍·태인·고부향교 전교,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련원은 국비와 도비 2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0억원을 들여 2개 동, 전체 면적 1220㎡ 규모로 조성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우

리누리문화생활관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맡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수련원은 현재 예절과 서예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교육과 체험 과정을 더욱 늘려 시민과 기관·단체에 유교문화를 접하고 선비정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원식에 앞서 칠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를 선보였고, 행사 뒤에는 국악공연단 ‘이름’이 축하 공연을 펼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자연

전주매일 캠페인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 동죽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팔갯벌 위에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셰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셰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셰니어는 팔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와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

